

890억 보안 투자에도 내부자 위협에 무방비

1 개인정보 잔혹사

〈上〉 쿠팡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의 '890억 보안 투자'가 내부자의 한 번의 키 입력에 무너졌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5개월 동안 새어 나가는 동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이번 초유의 사태는, 쿠팡의 보안 체계가 외부 해커가 아니라 '집 안의 적'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음을 드러냈다.

2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그동안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인정보노출'이라는 표현 대신 "유출이 났다"고 인정하며 한국 법인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12면〉

3370만 개인정보 5개월 노출 과도한 권한·모니터링 부재 CISO·CPO 분리에도 역부족 다국적 구조 속 통제한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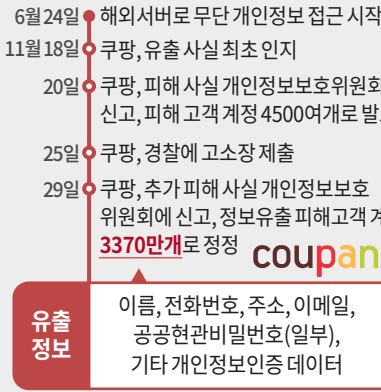
박 대표는 유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국인 직원이 용의자로 지목된 점에 대해 그는 "해당 직원은 단순 인증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라며 "혼자 일하는 개발자는 없는 만큼 단순히 복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알려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일부 유출된 사실을 시인했다. 박 대표는 이를 안내 문자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를 받아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가 충격을 주는 핵심 이유는 쿠팡이 그동안 정보보호 조직을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해왔다.

통상적으로 기업 내에서 CISO는 해킹 방어 등 '기술적 보안'을 총괄하고, CPO는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등 '관리적·법적 보안'을 담당한다. 두 직책을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 방어와 법적 감시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실제로 쿠팡은 올해 정보보호 부문에만 890억 원을 투자하

쿠팡 정보유출 주요일지



그래픽/정민주 기자

며 삼성전자와 KT에 이어 국내 3위 규모의 보안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칸막이식 전문화'와 막대한 자금도 내부자의 일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내부 직원이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서명된 액세스 토큰 및 암호키 악용)을 이용해 정상적인 경로로 위장하여 정보를 빼돌린 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CISO와 CPO의 분리 운영만으로는 '내부자 위협(Insider Threat)'을 막기에 역부족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CISO가 구축한 방화벽은 외부 침입을 막는 데는 강력하지만, '정상적인 열쇠(인증 토큰)'를 가진 내부 직원의 접근은 공격으로 식별하지 못한다. CPO가 수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또한 실제 시스템단에서 접근 권한 관리가 느슨하다면 서류상의 약속에 불과해진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개발자에게 부여된 과도한 접근 권한 ▲민감 정보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 ▲중요 암호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치명적인 '내부 통제(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3370만명의 정보가 5개월간 빠져나가는 동안 이를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이 외부의 적만 경계했을 뿐 내부의 구멍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두고 "돈이 목적이었다면 즉시 협박했을 텐데, 5개월 뒤 피해자들에게 직접 알린 점으로 미루어 회사에 양심을 품은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쿠팡의 상충부 의사결정권자가 대다수 외국인인 구조적 특성상, 수사가 한국 직원 선에서의 '꼬리 자르기'로 끝날 우려가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삼성, 트라이폴드 내구성·성능 다 잡았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개

두께 3.9mm·아머 플렉스힌지 탑재 20만회 폴딩 테스트로 내구성 검증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역대 갤럭시 중 가장 얇은 3.9mm 두께를 구현했습니다. 단순히 얇은 것이 아니라 내구성, 성능, 울트라 카메라 경험까지 확보하는 최적의 하드웨어 레이어아웃을 채택했습니다.”

강민석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부사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열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미디어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제품에 지난 2019년 선보인 ‘갤럭시 폴드’부터 축적해 온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역량과 제조기술이 집약됐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갤럭시 Z 폴드7’과 같은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 후면은 최대 2억 화소 광각 카메라를 탑재했다. 배터리는 5600mAh 용량으로 역대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크며 최대 45W 초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트라이폴드폰에 꾸준히 제기돼 온 내



2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갤럭시 Z 트라이폴드 미디어공개 행사에서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구성 우려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트라이폴딩 구조에 최적화된 ‘아머 플렉스힌지’를 탑재했으며 얇고 내구성이 뛰어난 티타늄 소재 힌지를 적용했다.

강 부사장은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20만회 이상의 폴딩 테스트를 통해서 완벽한 내구성, 100번씩 접는 경우 5년 동안 확보될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했다”라며 “네트워크 환경,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도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양한 환경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거쳤다”고 했다.

화웨이 등 중국 경쟁사들이 앞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상황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앞세워 제품 차별화를 이루겠

다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은 “단순히 두 번 접는 하드웨어를 넘어 대화면에서도 완벽한 사용자 경험(UX)과 소프트웨어 사용성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폴더블폰 시장 성장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폴더블 시장은 계속 커져 나갈 것이며 Z 트라이폴드가 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오는 12일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이후 중국,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BYD 이어 지커 상륙... 수입 전기차 지각변동

中 전기차 국내시장 확장세 샤오펑도 한국 진출 준비중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이 미국과 유럽의 양강 구도에서 중국 브랜드의 합류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기업인 중국 BYD가 가성비 전략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에 안착한 가운데 중국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까지 국내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다양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출로 국내 소비자